



과연 결자해지結者解之가 가능할까?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오르셨음을 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부활 제 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주님 승천 대축일이 의무 축일이 아닌 일부 나라에서는 부활 제7주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교회의 사도직 수행을 위해 1967년 '홍보의 날'을 제정했으며, 한국 천주교회는 1980년부터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교구 신자분들의 정성과 기도로 새 교구청을 건립하여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 교구청은 넉넉한 부지에 아담한 산세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곳에 지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구청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과 교구민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교구장 서리 신부님과 교구청 마당을 산책하다 등나무에 휘감긴 소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서리 신부님은 소나무가 너무 갑갑해 할 것 같으니 전지를 해 주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넝쿨이 된 대수일까 그냥 툭 끊어버리면 노끈처럼 술술 풀릴 거라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지가위를 들고 가까이에서 본 넝쿨은 예상과는 달리 엄청 단단하게 소나무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정말 결박도 이런 결박이 없습니다. 그 조이는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소나무에 옥죄 자국이 선명합니다. 담쟁이넝쿨도 오래된 줄기는 소나무의 껍질 틈새로 파고 들어 긴 거머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등나무와 담쟁이를 제거하고 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와 그 흔적인 상처들이 저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소나무처럼 누군가가 결박을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풀어낼 재간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시대를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실 해방자,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고통과 두려움, 의심과 아픔, 슬픔의 결박으로 예수님의 참된 부활과 승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려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믿음을 복돋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려 승천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주용민 리노 신부 | 교구 사무처장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1,1-11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 서

에페 1,17-23

복 음

마태 28,16-20

마음으로 말하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야 합니다”(에페 4,15)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소통을 위해 “가서 보다”와 “경청하다”에 대해 성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음으로 말하기”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가고, 보고, 경청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소통을 향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 진심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허위 정보에 바탕을 둔 이 시대의 무관심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당신 자신을 강요하지 않고 보여 주시고, 일어난 사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양극화와 대립의 시기에 ‘마음을 열고 두 팔 벌려’ 소통하려는 노력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책임입니다.

가톨릭 언론인의 수호성인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마음으로 말하기”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악용하는 흐름이 있는데, 특히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이 온유한 살레시오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아, 용기와 자유를 갖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하며,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의 유혹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생명을 나누는 선물입니다. 저는 온화하면서도 예언자적인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교회의 소통을 꿈꿉니다. 이는 하느님과 이웃,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소통이며 신앙의 불을 지필 줄 아는 소통입니다. 들을 때의 겸손과 말할 때의 담대함에 바탕을 둔 소통은 진리를 사랑에서 떼어 놓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꼭 필요합니다. 전쟁, 증오와 반목, 모욕적인 폭언 등 악습을 이겨내기 위해 평화의 언어를 증진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이 확산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모든 형태의 여론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적인 화법을 거부하고, 민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전쟁 바이러스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화는 마음의 회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히고 분열된 세상의 그림자를 걷어 내고, 우리가 전해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요청받았는데,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직업이 아닌 하나의 사명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성경사목부 새 동지를 틔다’

지난봄, 교구 성경사목부는 새 교구청으로 이사하기 위해 30년 동안 쌓아두었던 흔적들을 펼쳤다. 묵은 짐들과 자료들 속에서 그간 잊고 있었던 아쉬움과 감동의 기억들도 함께 쏟아져 나왔다. 30년의 역사를 분류하고 선별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다.

봉사자들은 조를 나누고, 날짜에 맞추어 성경사목부 이사 작업을 도왔다.

혼자 하는 작업도 있지만 무거운 상자를 맞들어야 할 때 상대의 발걸음도 배려해야 하고, 앞장설 때와 뒤에서 따라갈 때 안배하는 힘 조절이 다름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힘들어도 마주 웃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애석하게도 새 교구청 이사 일정이 개강 이후라 조급해졌다. 부랴부랴 봉사자들이 시간 내가며 했던 몇 번에 걸친 이사. 개강을 하고 나면 봉사자들에게 수업

은 최우선이 된다. 수업 시간을 묵숨처럼 지키고자 한다.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앞이 안 보여도, 캄캄한 시골길을 달려야 한다. 감기로 열이 끓어도, 집안의 길흉사가 있어도, 수업은 꼭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개강 전에 이사를 끝내야만 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결국 이사는 개강 이후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삼삼오오 봉사자들이 지도 수녀님들을 도와 완료한 이사였다.

결코 혼자서, 몇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사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연대감과 해냈다는 성과에 감사드렸다.

사실 익숙한 곳 가톨릭 문화원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자차가 없는 봉사자들에게는 그만두어야 하는 고민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지난 4월 11일 새로운 교구청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넓은 강의실, 편한 책상과 의자, 거대한 스크린, 선명한 빔프로젝터에 너무 감동하고 기뻐지만,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새 교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푸르른 나무, 나무들이었다.

강의실에서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초록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새 교구청은 바쁜 도심을 벗어나 번잡함을 씻어 주고, 건조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포근함이 있다.

성경사목부는 작년 12월에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30년을 기념하는 일인 동시에 옛 교구청과의 이별을 고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제 마산교구 성경사목부는 새로운 30년을 새 교구청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교구청 곳곳에 우리의 기억들을 남기게 될 것이다.

월 2회 봉사자 모임을 가지는 강당, 교육반 봉사자들을 위해 밤까지 불 켜진 2층 성경사목부실, 성경잔치 물건들이 쌓여있는 창고, 수많은 소규모 교육과 회의가 이어질 작은 회의실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3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기대된다.



새 교구청에서의 첫 모임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4

함안지역 교우촌(1)

함안지역엔 일찍부터 피난 교우들이 모여 살았다. 경상도 북쪽에서 낙동강을 따라오다 주저앉았고 남강을 따라오던 교우들도 이곳에 머물렀다. 일부는 더 내려가 김해 쪽 교우촌에 흡수되기도 했다.

낙동강과 남강을 동시에 끼고 있는 대산면代山面 일대엔 피난 교우들이 유독 많이 모여 살았다. 당시 이 지역엔 저습지가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엔 좋은 땅이지만 홍수가 나면 물바다로 바뀌는 험한 땅이었다. 피난 교우들은 이 일대에 모여 살며 상호 연락망도 갖추고 있었다.

지방 사람들은 방목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난 교우들은 움막을 치고 살았다. 어떻게든 강은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대산면 저습지 인근엔 교우들이 조금씩 모여들었고 흩어져 있던 그들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뭉쳤다.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홍수를 겪으면서 차츰 안전한 쪽으로 옮겨갔고 대산지역에 정착을 시도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정착했을까? 1866년 병인박해 이전부터 있었다. 뒷받침하는 기록이 치명일기致命日記에 나온다. 순교자 구한선 다두(타대오)에 관한 기록이다. 치명일기는 1895년 발간된 책으로 병인박해 순교자 877분에 관한 기록이다. 당시 조선교구장 뮈텔 주교가 4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치명일기에 등장하는 구 다두에 관한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함안미나리골중인으로서 리신부를되시고 거제도에 전교했더니병인년에진주포교의게잡혀매를만히 맞고나와서즉시병드러칠일만회죽으니나흔이십삼째러라.(함안 미나리골 중인으로서 이 신부를 모시고 거제도에 전교하였더니 병인년에 진주 포교에게 잡혀 매를 많이 맞고 나와 즉시 병들어 7일 만에 죽으니 나이 23세더라.)

순교자 구 다두(타대오)는 함안지역 교우촌에 속한 인물이었다. 기록에 나오는 이 신부는 리델(Ridel 이복명) 신부를 가리킨다. 그의 복사服事로서 거제도까지 갔던 것이다. 당시 선교사의 복사가 되려면 건장한 체격과 함께 신분이 확실해야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함안 교우촌에는 구 다두(타대오)의 부모와 형제들이 살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리델 신부는 함안 교우촌에 머물며 미사 봉헌과 고해성사를 주며 활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의 추천으로 젊은 구 다두를 복사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기록이 없을 뿐이다.

구 다두를 배출한 함안 교우촌은 어떤 공소였을까? 1939년 거제 옥포 주임이었던 김후상(金厚相 1901~1983) 신부는 ‘거제도 천주교 연혁’이란 필사本筆寫本을 남겼다. 책에 의하면 순교자 윤봉문의 부친 윤사우尹仕佑는 함안 논실論實공소에 살다가 1883년 11월 선종한다. 함안의 논실공소는 거제도 교우들과 연대를 가질 만큼 안정된 교우촌이었던 것이다.

경상도 남부지역 공소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는 로베르(Robert 김보록) 신부가 파리외방선교회에 제출한 1883년 교세통계표로 알려져 있다. 이곳엔 함안지역 공소 3개가 등장한다. 동천, 논실, 밤대공소다. 그러다 동천공소는 1885년 자취를 감추고 밤대공소 역시 1889년부터 통계표엔 나오지 않는다. 논실공소만 끝까지 등장한다.

논실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山西里다. 원래 이곳은 함안군 대산면에 속해 있었는데 1873년 가야면에 편입되었다. 논실은 답곡畓谷 마을이라고도 한다. 산서리에서 북동쪽에 있는 고개를 넘으면 평림리(가등공소)를 만나고 남강이 흐르는 쪽으로 가면 구름 다두의 첫 무덤이 있었던 하기리下基里를 만난다. 구한선(다두)은 논실공소 교우였던 것이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15

함안지역 교우촌(2)

기록에 등장하는 함안지역 첫 공소는 동천, 밤대, 논실論實이라 했다. 로베르 신부의 1883년 보고서에 등장한다. 로베르 신부는 파리외방선교회 사제로 1876년 조선에 입국했다. 병인박해(1866년) 10년 뒤였다. 황해도에서 활동하다 1882년 경상도 전담 사제로 발령받는다.

경상도 전담은 그가 처음이다. 발령 후 그는 모든 공소를 방문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다닐 상황이 아니었다. 조선과 프랑스는 1886년 한불조약을 체결하고 비준批准은 1887년 5월에 있었다. 따라서 공적인 박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1883년 보고서는 1882년 6월부터 1883년 5월까지의 사목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로베르 신부는 경남지역 많은 공소를 가능한 가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의 방문은 최초로 이루어진 사목자의 공적인 방문이었다.

그가 찾아간 공소는 1882년 이전부터 교우들이 살았던 마을을 뜻한다. 지금의 공소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공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누군가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정하고 미사를 봉헌했다고 가정하면 된다. 따라서 1883년 보고서에 공소가 등장했다면 그 지역엔 훨씬 이전부터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 한편 선교사들 보고서엔 가끔 공소 이름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일정한 장소에 공소 건물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임 장소가 바뀌면 보고서에도 이름이 바뀌었던 것이다.

1883년 교세 통계표에 나오는 마산교구 소속 공소는 8개. 함안咸安 동천, 논실, 밤대, 삼가三嘉 황개, 단성丹城 능구지, 진주의 소촌召村, 창원의 잉애터, 김해金海 노루목이다. 물론 이 공소들 외에도 로베르 신부가 사정이 생겨 못 간 공소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논실論實공소 위치는 가야읍 산서리山西里라 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대산면代山面에 속했다고 했다. 1860년대 대산면은 꽤 넓었다. 지금의 법수면法守面 일부와 산인면과 가야읍 북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천과 밤대 위치는 알 수가 없다.

다음 표는 선교사의 함안지역 보고서를 연도별로 나열해 본 것이다. 공소 이름이 바뀌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칸 안의 숫자는 당시 공소 교우 숫자. 동천과 밤대공소는 1885년과 1889년부터 사라진다. 그런데 빈자리를 읍, 토포, 율량공소가 채운다. 율량공소는 1891년 나타나 끝까지 등장하고 있다.

말산末山, 가등佳嶺, 동박洞白公소 방문은 늦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밤대공소는 읍, 토포, 율량공소와 연관이 있다. 율량의 율粟은 밤나무를 뜻하기에 더욱 그렇다. 선교사는 당시 함안 군수가 살던 곳을 읍이라 표현했다. 그리고 이곳 교우들은 사정이 생겨 공소로 사용했던 집을 몇 차례 옮겼을 것이다.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동천	71	64															
논실	39	37	60	32	44	60	71	68	19	90	90	78	70	92	52	75	24
밤대	12			19	29	21											
읍		17					23	20									
토포			95	70	35												
율량									25	40	42	28	32	36	23		19
가등															75	53	65
말산																28	23
동박																	25

건강성사

일시: 5월 28일(주일)
장소: 산청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장 서리 동정

**부산 경남 정착마을(한센인) 한마음잔치
신앙대회 미사**
일시: 5월 30일(화) 11:00
장소: 산청 성심원

교구/본당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5월 25일(목) 13:30
장소: 교구청

청년신앙강좌

일시: 5월 28일(주일) 13: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5월 기도모임 (5월 성모성월 100단 묵주기도)

일시: 5월 22일(월) 09:00~16: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점심 식사 김밥 무료제공)
문의: 회장 010·9399·5454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 성당
문의: 010·9992·344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전인적인 치유세미나

일시: 5월 26일(금)~8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장소: 청주교구 초청성령화관
내용: 영적치유, 내적치유, 육적치유, 해방기도
강사: 오웅진 신부, 신상현 수사, 한연홍 신부,
박제천 신부, 맹진학 신부, 김명심 신부,
윤민재 베드로 신부 외 전국유명강사
문의: 043·213·9103, 010·8466·8238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헬라어)

zoom수업: 7월부터 1년간 수-19:30(신·구약),
목-10:00(구약)/ 수강료: 3개월 30만 원(주 1회 2시간)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가톨릭 OTT cpbc 플러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손쉽게, 내 삶에 신앙 더하기 +
cpbc 플러스를 통해 수십만 개의 영상, 오디오, 뉴스,
그리고 영화를 만나보세요.

▶ cpbc 플러스를 지금 스토어에서 검색해
다운로드해 보세요.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내용: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하청본당 제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회장: 정영숙(사비나)
사목협의회부회장: 김태우(가브리엘)
총무분과위원장: 김명희(베로니카)
재경분과위원장: 강문호(스테파노)
복음화분과위원장: 서월순(카타리나)
구역분과위원장: 신양순(제마)
전례분과위원장: 윤정옥(엘리사벳)
청소년분과위원장: 문정현(살비아)
시설분과위원장: 송민섭(베네딕도)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5월 22일(월) 19:00	중앙동성당	신앙 여정의 길 주님 만남	한주인 마태오 신부(교성본당 주임)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자도) 성지순례 모집
6.7(수)~9(금)/ 6.12(월)~14(수)/
6.19(월)~21(수)/ 6.26(월)~29(목)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6.15(목)~18(주일) 대전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7.27(목)~30(주일) 원주·춘천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파스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악수를>

홍예성 바울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마산교구 가톨릭문인회 회원이 된 다음 해인 2018년 3인신앙수필집 발간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수필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에 겁 없이 응답하여, 아무런 숨김없이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놓아야 하는 집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필집의 제목 『한 번만 멈추면 아름다워진다』처럼 내 삶도 한 번만 멈추면 아름다워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몇 번이나 마주했다. 세 명이 함께 글을 쓰면서 자아와 세속의 삶 안에 갇힌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동안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해결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뽀뽀한 자존심으로만 버티며 내려놓지 못하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좋으신 주님께서서는 내 삶의 여정에 늘 함께하심을, 이웃들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주님께 부끄러운 삶을 긴 고백처럼 여지없이 쏟아놓은 소중한 여정인 긴 봄을 지나고 여름에 드디어 책을 내놓았다. 이 수필집에는 나의 수필 열두 편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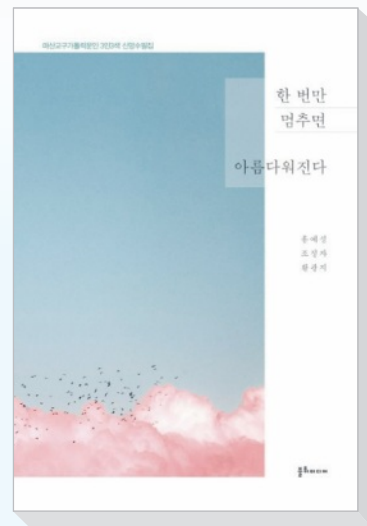
그중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악수를>이란 수필의 한 부분을 소개해 본다.

“요한 신부님은 당부를 하고 또 했다. 교황님 앞으로 나아가 인장 반지에 친구하라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생애 최고 환희의 순간이었다. 허리 굽혀 인사하자 그분은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순간 내 역사에서 아픈 기억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만 오롯이 남았다. 그분 앞을 물러 나 오자 직원이 선물로 하얀 묵주를 건네주었다. 더 오래 그분을 뵈고 싶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유달리 정이 많은 여동생 가족은 나를 위해 크로아티아 여행을 함께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로마로 넘어가 베드로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주례로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한국인 부제 다미아노의 가족과 그의 본당 신자들로 꾸려진 순례단에 합류하였다. 수품 사제 가족에게 배정된 초청장 덕분에 우리는 베드로 광장의 수많은 인파를 통과하여 성전 안 사제석 뒤에 배정된 수품 사제 가족석에 자리할 수 있었다. 다음날 새 신부 가족의 교황님 알현에도 순례단 40명 모두가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다.

지금도 그날의 사진을 꺼내어 본다. 교황님 알현의 순간 차마 바라보지 못했던 교황님의 파스한 눈길을 사진에서 볼 수 있었다. 그 파스함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날마다 영성체 후 묵상을 할 때면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안온해진다. ‘아, 신앙은 불길처럼 뜨겁다기보다 햇살처럼 파스한 것이구나!’

봄날의 햇살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한 「찬미 받으소서」 회칙 87항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한 울안에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인 닭들과 개, 정원의 소나무들, 그리고 텃밭의 채소들과 마당 잔디밭의 야생화들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을 걸으며 한 번씩 멈추어 보련다.



장재동본당 하느님의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장재동본당(주임: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천주의 어머니 Cu. 소속 하느님의 어머니 Pr.은 5월 2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하느님의 어머니 Pr.은 단원 4명과 예비단원 2명으로 총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주임 신부와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였다. 하느님의 어머니 Pr. 단원들은 2,000차 주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3,000차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장사는 잘 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8)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시목센터장

“신부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신부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미사에 참례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올 3월부터 재개한 거제 장평성당의 영어미사때 어느 미국인 부부가 미사를 마치고 건넌 한 마디였다. 낯선 곳에서 전례 참여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던 이 부부는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 규제로 미사마저 중단되어 고독한 한국생활을 했던 것이다. 서서히 완화된 규제 속에서,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 외국어미사의 재개는 늦추어졌다. 이들은 영어미사를 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급기야 서울로 미사를 참례하러 다녔던 것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 서울까지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갔단다. 먼 거리를 오가는 수고로움보다는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컸다고 한다.

본국에 있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감정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하느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확인하는 구원사적 경험이였으리라 믿는다. 창원에서 거제로 가는 자그마한 수고로움과 나의 업무이고 의무인 미사를 한 대를 봉헌하였는데, 너무 커다란 감사의 인사를 받아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미사 참례의 은총과 기쁨으로 가득 차 너무나 신나하는 교우를 만나는 것은 사제로서 행운이라 생각한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러는 와중에 여러 곳에서 외국인들이 미사를 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함안 칠원성당에 새로 부임한 주임 신부한테 연락이 와서, 시골 본당에 청년들이 미사를 많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전부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국말이 너무나 서툴러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 성당을 찾는다고 했다. 예전부터 교우 공동체가 이들을 기특하고 가엾이 여겨 강당을 내주고 간식도 제공하며 모임을 갖게끔 배려를 해 주고 있었다고 한다. 이주민 센터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니, 당연히 한걸음에 달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을 만나고 여러 협의를 거쳐 매월 마지막 주일은 대성전에서 한국어미사를, 동시간에 1층 강당에서는 베트남어미사를 봉헌하기로 하고, 4월 마지막 주에 첫미사를 드렸다.

교구에 베트남 신부님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나, 이미 진주, 통영, 창원에 있는 베트남 공동체미사를 전담하고 계셔서 칠원성당까지는 도무지 미사를 봉헌 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칠원 베트남 공동체에는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이제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 같은 내가 베트남어로 미사를 봉헌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민센터에 일하시는 베트남 수녀님의 도움을 받아 경문 읽는 훈련을 하고, 강론은 수녀님께 부탁을 드리고 어렵사리 첫미사를 마쳤다.

이 소식을 어찌 들었는지 칠원, 칠서에 사는 필리핀 사람들이 본인들을 위한 미사는 해 줄 수 없냐는 문의도 들어온 상태이다. 이주민센터가 이제 ‘장사 잘 되는 집’이 되어가고 있다. 거제 장평성당, 함안 칠원성당에서 외국어미사를 봉헌하지만, 우리 교구 내 많은 지역에서 자국어로 드리는 미사를 목말라하는 교우들이 많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용원’에서도 필리핀 교우들이, 멀리 ‘밀양’에서도 필리핀 교우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리저리 출장 다니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 회사를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하며, 우리 고객들을 받아주시는 거제 장평성당, 통영 태평동성당, 함안 칠원성당의 출장지 신부님들과 교우 공동체에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